

신문으로 읽는 영상뉴스

전남일보 유튜브 <https://youtu.be/RIX-F4lcBQo>



全南日報

‘흠·사람 그리고 불’을 테마로 열리는

전남일보 #고려청자 #다양한테마 #가족·친구와함께



‘첫 겨울축제’... 51회 강진청자축제 ‘성료’

총방문객 10만6천여명 기록 체험·먹거리 등 콘텐츠 풍성 축하공연·즉석 경매 등 호응



한편, 강진은 국보와 보물급 청자 80%가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진청자축제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강진청자축제는 ‘첫 겨울 개최’라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3일부터 7일간 열린 ‘제51회 강진청자축제’의 총 방문객 수는 10만 6152명으로, 시기 변경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청자 축제의 역사를 새로 썼다.

또 청자 판매 1억9431만원, 농산물 판매 3035만원, 먹거리 타운 매출 2억 814만원, 하멜촌카페 매출 1903만원 등 총 4억5183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 일원에서 ‘흠·사람 그리고 불’을 테마로 열린 이번 축제는 눈썰매장과 짚라인, 족욕체험, 화목가마 장작패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콘텐츠로 꾸며졌고, 먹거리 타운에서는 흥어삼합부터 전복밥, 한우구이, 분식까지 강진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축제장 인근에는 청자를 관람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마련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축제 개막일에는 각 ‘읍·면 대표 가수’들이 참여한 가요제와 김봉곤 훈장의 딸로 유명한 ‘미스트롯2’ 출신 김다현의 축하무대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화목가마 요출 작품 10점에 대

한 즉석 경매가 이뤄져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고려청자 특유의 오묘한 비색과 수려한 상감 문양이 새겨진 작품들이 차례로 등장할 때마다 탄성이 쏟아졌다.

최고가 작품은 500만원 상당의 ‘청지역상감국당초문병’으로 50% 할인된 250만원에 낙찰됐다.

강진청자축제를 찾은 강현주씨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여태 못했는데 청자축제가 다시 열려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청자축제의 명성을 오랫동안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강진청자축제는 가족, 친구, 연인 등 누구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정성껏 준비했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juyeong.lee@jinilbo.com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널 포기하지 않을거야”

취재수첩



양가람 사회부 기자 lotus@jinilbo.com

원을 찾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지역의 대형 병원 위주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대부분 인건비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아주 오래 전, 마음의 병을 가진 소녀를 만난 기억이 있다. 시작은 작은 낚시였다. 낚시에서 쉬지않고 종알종알 떠들 어대는 누군가의 목소리는 점점 다양해지고 커졌다. ‘저 사람은 널 미워하고 있어’ ‘너가 진짜 원하는게 이거야? 아니잖아. 아니라고 얼른 말해!’ 매 순간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오는, 파괴적인 언어로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존재들’ 때문에 그 소녀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쫓겨나다시피 그만 둔 학교, 디자이너의 꿈... 한순간에 모두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됐다.

“내가 죽어야 널 괴롭히는 저 목소리도 그치겠지?” 고통에 울먹이던 그 소녀 옆에 “널 포기하지 않을거야”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준 어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추억을 간직한, 건강한 사회인이 됐을까?

20여년이 흐른 어느 날 광주시교육청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그 소녀가 떠올랐다.

위탁교육기관과의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역 내 많은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이 오갈 데 없어지자, 교육청 관계자들의 ‘읍소’가 이어졌다. 당장 수십명의 학생들을 데려다 재우고, 공부시키며 치료해줄 병

얼마나 지났을까. ‘교육의 공공성’에 공감한 광주성요한병원이 지역 내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을 품어주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전했다. 광주기독병원도 새로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되어주겠다고 나섰다. 두 병원 모두 중증의 정신건강위기 학생들을 위한 입원형 병상도 마련해 ‘원스톱 교육·치료·입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오는 9월 광주에만 두 곳의 ‘병원형 위(Wee)센터’가 들어선다. 오는 2027년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까지 문을 열면, 광주의 정신건강위기학생 지원 체계는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정형편 등 이유로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학생들을 위한 입원 병상을 마련한 ‘학력인정 대안교육기관’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 대학병원과 연계해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 중인 대구 역시 학력인정형 입원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지금도 수많은 ‘소녀(년)들’이 극심한 우울증이나 중증 ADHD 등에 시달리며 학교생활을,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공허한 구호로 끝날 뻔한 짧은 메시지 덕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쇠소깍해변에서 관광객들이 돌탑을 쌓고 있다. 제주=뉴시스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장로관

▶ 전관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이물척박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포티마켓 총장로점 062-222-7733

주차장 안내

본관(1관~10관) | 대관객 거리

1관: 대외비

2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엔트맨과 와스프:퀵템매니아

3관: 대외비

4관: 카운트 다운 2

5관: 대외비

6관: 바다 탐험대 육두봉 육지수호 대작전

7관: 명동이/더 웨일,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댓 웬스+

8관: 명동이/크리드 3/어메이징 모리스 리틀 엘렌:외계인과 안테나 대소동

9관: 엔트맨과 와스프:퀵템매니아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안길 12

명동이

3월 1일 극장 대개봉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한약방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